

卷 頭 辭

韓國 民法學界의 巨星이시며 우리 法學界의 큰 師表이신 厚巖 郭潤直教授께서 今年 12月 6日로 華甲을 맞이 하시었다. 郭教授께서는 그동안 탁월한 民法關係 著書와 實際的이고 獨創的인 많은 法律論文을 發表하시어 民法分野에 있어서 學界와 實務界에 공히 커다란 業績과 影響을 끼치셨을 뿐 아니라 弟子들에게는 항상 참된 法律家의 精神과 法的 思考方式을 일깨워 주시는 큰 스승으로서 華麗하지는 않을지라도 은은히 빛나는 삶을 살아 오셨다.

郭教授의 이러한 結實과 보람에 가득찬 지난 歲月을 생각해 볼 때 郭教授의 華甲은 當身에게만 아니라 우리 法學界의 모든 사람이 慶賀해 마지 않을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.

그리하여 우리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에서는 이 慶事스러운 일을 祝賀하고 郭教授의 년간의 學問的 業績을 기리며 그 勞苦에 報答하는 뜻에서 미흡하나마 法學 第26卷 4號를 郭教授의 華甲紀念號로 發刊하여 奉呈하기로 하였다.

郭教授의 華甲을 진심으로 祝賀드리며 앞으로 그 學問世界가 더욱 깊어지고 날로 새로워질 뿐 아니라 모쪼록 우리 法曹의 올바른 法理解와 運用에 더 크게 寄與하실 것은 물론이고, 또한 더욱 健康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.

끝으로 본 華甲紀念論文集을 위해 특별히 寄稿하여 주신 여러 教授님들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.

1985年 12月

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

所長 徐 元 宇